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6. 4		

	2008. 6. 3()		
	(368-4413)	02-368-4443	2

:

가 가 가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CEO Report 를 발간(2008. 6.4)하였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자료에서, FY'07 자동차보험 산업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가 4,172 억원에 달한 중요한 원인이 물적담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이 높은 점이므로, 동 담보의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첫째, 새로 출시된 고가차량이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평균차량가액이 2006 년이 2002 년보다 약 18%증가하였고, 2007 년에 시중에 판매된 자동차의 57.7%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외산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평균 2.95 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등록 차량 중 외산차의 비중이 2000 년 0.42%에서 2007 년 5.13%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외산차 판매대상이 중소형자동차로 확대되고 있어, 외산차의 시장점유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외산차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물적담보의 손해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의 분쟁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비요금 공표제의 영향으로 물적담보의 원가에 해당하는 공임이 FY'05 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위원회는 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물적담보 손해율을 4.1%p 개선하면 약 1,771 억원의 영업수지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차량담보 요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요율적용의 형평성 확보와 제작사의 부품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를 확대(현행 11 등급에서 21 등급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외산차로 확대하여 충돌시험결과가 차량담보 요율체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량담보 요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산차 수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품가와 정비수가가 국산차보다 현저히 높은 현행 외산차 수리시장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적정정비요금 공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적정정비요금 공표제 항목 중 공임부분은 표준작업시간과 달리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시장주의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생부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특약을 개발하거나, 수리센터에서 재생부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부품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http://www.kiri.or.kr>